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37>

JCCT 2023-11-17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 지식, 건강 신념과
예방적 건강 행위와의 관계 연구
-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ealth knowledge and health beliefs of public health center officials
Study of relationship with preventive health behavior
(Focusing on the period of COVID-19 outbreak)**

노지영* 김은재**

NO JI YEONG*, KIM EUN JAE**

요약 본 연구는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의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고 보건소 공무원의 예방적 건강 행위를 증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시도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예방적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신념의 하위요인인 유익성($\beta = .298$), 심각성($\beta = .193$), 행동의 계기($\beta = .183$)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예방적 건강 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33.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되었으며, 자가 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이나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예방적 건강 행위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코로나19, 공무원, 보건소,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degree and relationship of health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public health center officials and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measures to promote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public health center officials. Factors affecting health behavior were identified as sub-factors of health beliefs: benefit ($\beta = .298$), severity ($\beta = .193$), and trigger for action ($\beta = .183$). The explanatory power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s between these variables was found to be 33.9%. This study was attempted in the absence of research on COVID-19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mong public health center officials, and objective observation or qualitative research that could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to 19 Research exploring the meaning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s is needed.

Key words : Covid-19, Health Belief, Health Center, Preventive Health Behavior, Public Official

*정희원,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정희원,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4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4,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kkhayang@hanmail.net
Dep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보건소는 국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복지국가의 확립에 일조하고 있으며, 보건사업에서 폭넓은 개편으로 통합기능형 보건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민원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중국의 한 지역에서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 확산하였다[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WHO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등급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국내에서도 2020년 1월 첫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확산에 대비하고자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고 공중보건 감염병 대응행이라는 재난 속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지역 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감염병의 확산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보건 의료체계는 물질·인적자원에 대해 재분배를 요구하게 된다[3]. 그로 인해 인적자원인 보건소 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인해 업무 과중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건소 공무원은 선별진료소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동안 감염원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감염 예방을 위한 지식, 예방수칙 시행이 매우 중요하며 그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4].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별에 맞추어 변화된 방역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요구되었으며, 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통합관리 활동 체계, 비상 의료 전달체계 방법 등 코로나19 발생 기간 보건소 공무원은 각종 예방 활동과 다양한 업무지원을 통해 지역 내 감염 차단 역할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역주민의 감염 위험과 신종 감염병 관리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긴장 상황으로 인해 업무 과중으로 민원인 응대 시 건강관리에 문제를 초래하였다. 높은 업무 피로도는 개인

적인 건강 행위 습관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직무 만족도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지지, 대응, 행동유형에도 영향을 주며 직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5-6].

사회·심리적인 건강은 직업상 업무에서의 사회·심리적인 요소, 스트레스와 안녕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직업적 특성 중 사회·심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7]. 보건소 공무원의 사회·심리적 건강은 양질의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만족과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8]. 그러나 아직 감염병 대응에 임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건강요구를 하는 민원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긴 시간을 접촉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강 측면에서의 건강 행위와 관련된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 건강 관련 행위의 개입과 설명이 쉽고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건강 신념 모델이 활용됐다[9-12].

건강 신념 모델에서는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나 위험의 정도를 지각하는 인지하는 민감도와 심각성, 장애성 및 건강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성과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기대에 따른 행동의 계기 등으로 개인은 건강행동 측면이나 예방 행위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며[9], 신종 감염병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간호 학생, 의료기관 환자 대상 등에서 수행하였으나[9-10],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어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지식과 예방 행위 정도 및 건강 행위의 실천을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점에서 보건소 공무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건강 신념 및 건강 예방적 행위의 수행 정도와 건강의 수준 및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공무원의 코로나19 관련 지식과 건강 신념과 예방적 건강 행위의 관계를 분석하고, 예방적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행위를 분석한다.
- 2) 대상자 코로나19 지식, 코로나19 건강 신념, 코로나19 예방 행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예방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 예측 변수 5개로 계산한 결과 190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대상 하였으며 2021년 9월 27일부터 11월 04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실한 48부를 제외한 172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시행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JIRB-A22-03)을 받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 대상자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 중 철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

하지 않을 것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4. 연구 도구

1)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는 한국 질병관리본부[[3]의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Choi[13]가 사용한 지식을 조사한 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Lee[14]에 의해 수정한 15개의 문항을 작성하고,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Content Validity Index, CVI=. 89) 이후 전원이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12 문항을 선정하였고 최종 전문가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 98이었다.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답은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12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4] 연구에서의 연구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10이었다. 본 연구의 코로나19 지식 측정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862이었다.

2) 코로나19에 대한 건강 신념

코로나19에 대한 건강 신념 측정 도구는 Lee[14]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 95였다. 민감성 3문항(CVI=. 88), 심각성 3문항(CVI=. 88), 유익성 3문항(CVI=1), 장애성 3문항(CVI=1), 행동의 계기 3문항(CVI=1)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5점은 '매우 그렇다'.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14]의 연구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97이었다. 건강 신념의 민감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1, 심각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2, 유익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6, 장애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5, 행동의 계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4였다. 본 연구의 코로나19 신념 측정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824이었다.

3)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 건강 행위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 건강 행위 측정 도구는

Choi[13]가 사용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 건강 행위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 최종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문가 내용 타당도 CVI=.86이었다. 총 1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5점은 매우 그렇다. 1점은 '전혀 아니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i[13]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ornbach's alpha =.770였고, 본 연구의 예방적 건강 행위 측정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913이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코로나19 건강 신념 및 예방적 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 변수 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코로나19 건강 신념 및 예방적 행위 실천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자가 159명(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나이는 30대가 57명(33.1%), 학력은 대졸 이상이 106명(61.6%)으로 가장 많았다. 직렬은 간호직이 91명(52.9%), 담당업무는 건강증진이 52명(30.2%)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2)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13	7.6
	female	159	92.4
Age	20-29 years old	35	20.3
	31-39 years old	57	33.1
	40-49 years old	33	19.2
	≥50 years old	47	27.3
Education	College graduate or less ≤	66	38.4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	106	61.6
Work years	< 5 years or less	80	46.5
	5-10 years	34	19.8
	11-20 years	28	16.3
	≥ 21more than a year	30	17.4
Work type	nursing	91	52.9
	health	20	11.6
	medical technician	24	14.0
	Other occupations	37	21.5
Department	health administration	18	10.5
	Mental health promotion	16	9.3
	Infectious disease control	17	9.9
	health promotion	52	30.2
	health visiting	14	8.1
	Dementia case management	29	16.9
	other departments	26	15.1

2.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의 정도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은 12점 만점에 평균 11.15±1.05점, 건강 신념은 평균 3.72±0.41점, 예방적 건강 행위는 평균 4.39±0.51점이었다. 건강신념의 하위영역별 민감성 2.90±0.60 점, 심각성 3.73±0.70 점, 유익성 4.55±0.55 점, 장애성 3.62±0.92 점이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의 정도

Table 2. Degree of Knowledge, Health belief,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COVID-19 (N=172)

Variables	M±SD	Min	Max
knowledge	11.15±1.05	7	12
health beliefs	3.72±0.41	2.53	4.93
sensitivity	2.90±0.60	1	5
severity	3.73±0.70	1	5
Beneficial	4.55±0.55	1.66	5

disability	3.62±0.92	1	5
trigger for action	3.81±0.67	1.33	5
preventive health behavior	4.39±0.51	2.14	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적 건강 행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적 건강 행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예방적 건강 행위 점수는 나이에 따라 (F=7.156, p=. 000), 근무 경력에 따라(F=4.113, p=. 00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적 건강 행위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Preventive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Variable	Categories	preventive health behavior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4.32±0.43	-0.532 (.596)	
	female	4.40±0.52		
Age	20-29 years old	4.10±0.61	7.156 (.000)	a<c,d
	31-39 years old	4.35±0.47		
	40-49 years old	4.54±0.45		
	≥50 years old	4.56±0.42		
Education	College graduate or less ≤	4.40±0.56	.169 (.866)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	4.39±0.48		
Work years	< 5 years or less	4.26±0.54	4.113 (.008)	
	5-10 years	4.43±0.51		
	11-20 years	4.58±0.41		
	≥ 21more than a year	4.53±0.44		
Work type	nursing	4.41±0.49	1.221 (.304)	
	health	4.21±0.64		
	medical technician	4.50±0.41		
	Other occupations	4.38±0.55		
Department	health administration	4.46±0.55	7.56 (.606)	
	Mental health promotion	4.48±0.45		
	Infectious disease control	4.50±0.39		
	health promotion	4.30±0.50		
	health visiting	4.55±0.57		
	Dementia case management	4.34±0.61		
	other departments	4.38±0.47		

4.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와의 관계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와의 관계는 Table 3와 같다.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방적 건강행위는 지식(r=. 183, p=. 016), 건강신념의 하위영역 중 심각성(r=.371, p=.000), 유익성(r=. 445, p=. 000), 행동의 계기(r=. 390, p=. 0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와의 관계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s (N=172)

	Health beliefs	Preventive health behavior
COVID-19 Knowledge	.092 (.231)	.183* (.016)
COVID-19 Knowledge		.048 (.528)
Severity		.371** (.000)
Beneficial		.445** (.000)
Disability		.084 (.274)
Trigger for action		.390** (.000)
Health beliefs		.406** (.000)

5. 예방적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예방적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예방적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예방적 건강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나이, 근무 경력과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의 하위영역 심각성, 유익성, 행동의 계기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5.584, p<. 001), Dubin-Watson 값은 2.065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분산 팽창 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207-1.242로 기준치인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는 .807-.828로 0.1보다 크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익성 ($\beta = .298$), 심각성($\beta = .193$), 행동의 계기($\beta = .183$)로 확 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예방적 건강 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33.9%로 나타났다.

표 5 예방적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health behavior (N=172)

	B	SE	β	t	p
(Constant)	1.585	.475		3.335	.001
severity	.140	.050	.193	2.823	.005
Beneficial	.275	.064	.298	4.294	.000
trigger for action	.141	.053	.183	2.650	.009
R ² =.362 Adj R ² =.339 F=15.584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보건소 공무원의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의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고 보건소 공무원의 예방적 건강 행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은 총 12문항에 평균 11.15점이었고 정답률은 92.87%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Kim, Cheon과 Yoo [15]의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77.2% 이었고,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Moon[6]에서는 68.0%보다도 높은 결과이다. 같은 도구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대상자의 지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코로나19 발생 후 2년이 지난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충분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자료, 발생 동향, 방역 등 질병관리청의 대응 지침에 따른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습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보건소 공무원의 현재 지식수준이 높더라도 변이바이러스, 치료제 등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대응 지침이 자주 수정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건강 신념은 3.72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유익성이 4.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감성이 2.90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Jo와 Choi의 연구[16]에서는 민감성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성이 가장 낮았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Jeong과 Kim[17]의 연구에서는 신중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유익성이 가장 높았고, 장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보건소 공무원의 경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관리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더라도 치료가 쉬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하여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언론에서 예방 지침을 준수 시 코로나19 예방 등의 혜택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유익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적 건강 행위는 4.39점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와 Choi의 연구[16]에서는 3.2점, Park, Kyung과 Seung의 연구[18]에서는 3.62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예방적 건강 행위 점수가 높았다. 이는 공무원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행위 모델이면서 지역사회 감염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예방적 건강 행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예방적 건강 행위의 차이는 나이, 근무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대, 50대 이상에서 20대보다 예방적 건강 행위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Cheon과 Yoo의 연구[15]에서도 30세 이상인 학생이 30세 미만인 학생보다 예방 행위 점수가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20대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시기로 예방적 건강 행위를 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 경력 역시 5년 미만인 경우가 예방적 건강 행위 점수가 낮아 근무 경력이 적고 20대를 중심으로 예방적 건강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방적 건강 행위는 지식, 건강 신념의 하위영역 중 심각성, 유익성, 행동의 계기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Kim, Cheon와 Yoo의 연구[15]에서 코로나19 지식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 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Park, Chang과 Kim의 연구[19]에서도 메르스에 관한 지식이 메르스 예방 행위 실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행위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 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Bao, Sun Meng, Shi와 Lu 연구[20]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대중매체,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전략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건강신념의 하위영역 중 유익성, 심각성, 행동의 계기는 예방적 건강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예방적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a의 연구[21]에서도 건강 신념의 유익성과 행동의 계기가 예방적 건강 행위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방적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유익성이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Kim, Kim, Yang과 Chae의 연구[22]에서도 유익성, 심각성이 예방적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유익성은 어떤 행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하며, 심각성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동의 계기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 인터넷 주위 사람들에 의한 권유 및 사건을 말한다. 코로나19 예방적 건강 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위를 통한 긍정적인 이익과 혜택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행동의 계기를 촉진 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예방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신념은 개인의 예방적 건강 행위의 변화와 유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건소 공무원의 예방적 건강 행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유익성, 심각성, 행동의 계기를 강조한 건강 신념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건강 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를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통해 예방적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신념 중 유익성, 심각성, 행동의 계기로 나타났으며, 33.9%의 설명력을 보였다.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건강 신념을 가지는 것은 예방적 건강 행위를 향상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지식, 건강신념, 예방적 건강 행위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도되었으며, 예방적 건강 행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G도에 지역적 제한된 위치의 보건소 직원을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연구 방법이 자가 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자가 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이나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예방적 건강 행위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2015[cited 2020 Mar].
- [2] H.J. Kim, E.Y. Cheon, J.H. Y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Risk Perception, Preventive Health Behavior from Coronavirus disease-2019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4, pp.246-254. 2021.
- [3] KCDC Korea, "Response guidelines to prevent of COVID-19(community)" [internet]. Osong: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OI: <http://ncov.mohw.go.kr/>
- [4] K.H. Lee, "Knowledge,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7.
- [5] M. Zhang, M. Zhou, F. Tang, Y. Wang, H. Nie, and L. Zhang, et al.,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regarding COVID-19 among health care workers in Henan, China",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Vol. 105, No. 2, pp. 183-187, 2020.
- [6] S.E. Moon, J.J. Yang, S.H. Hong, B.R. Lee, H.J. Kim, G.H. Seo, E.C. Kim, "A study on the relations of COVID-19 infection related knowledge,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Vol. 21, No.5, pp.675-683. 202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210066>

- [7] J.Y. Lee, M.J. Lee, S.Y. Pak, "The Impact of Psychosocial Health and Self-nurturance on Graduate Nurse Experience", *J Korean Acad Nurs Adm.* Vol. 21., No.5, pp. 459-468, 2015.
- [8] A.S. Aha, E.U. Jung,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Social Support of Community Health Center Officials on Social and Psychological Stress - Focusing on the Period of COVID 19,"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No.20. pp. 109-120,
- [9] S.H. Shin,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moting Lifestyle, Health Belief about Emerging Infectious Disease and Hygien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4, pp. 285-293. 2019.
- [10] K.H. Lee, "Knowledge,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7.
- [11] B. Lee, Y. Sohn, S. Lee, M. Yoon, M. Kim, and C. Kim, "An Efficacy of Social Cognitive Theory to Predict Health Behavior: a Meta-Analysis on the Health Belief Model Studies in Korea,"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 18, No.2, pp. 163-206. 2014.. DOI :<http://dx.doi.org/10.15814/jpr.2014.18.2.163>
- [12] S.E. Jo, H.C. Shin, S.W. Yoo, and H.S. Roh,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uberculosis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an Extension of HBM with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Fea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16, No.1, pp.148-177. 2012. DOI: <http://dx.doi.org/10.15814/jpr.2012.16.1.148>.
- [13] H.J. Choi, "A Study on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t the Public Health Center through Analytic Approach of Self-Reflection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7, No. 4, pp 171-180. 2019.
- [14] K.H. Lee, "Knowledge,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7.
- [15] H.J. Kim, E.Y. Cheon, J.H Y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Risk Perception, Preventive Health Behavior from Coronavirus disease-2019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4, pp 246-254.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4.246>.
- [16] H.U. Jo, E.H. Choi, "The Impact of COVID-19 on Health Prevention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Health Belief Model," *J Korean Soc Sch Health* Vol. 34 No. 2, pp. 115-122. 2021. DOI: <https://doi.org/10.15434/kssh.2021.34.2.115>.
- [17] M.R. Jung, E.Jeong, Y.M. Kim, "Effect of Health Belief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n Self-Efficacy for Healthcare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9, pp.315-322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9.315>
- [18] S.H Park, B.E Kyung, S.Y. Seung, "Knowledg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Coronavirus disease 19(COVID-19)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7, No. 2, pp.281-289, 2021.
- [19] J.H. Park, S.J. Chang, K.S. Kim, "Correlation between the preventive behaviors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the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of medically inclin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7, No.4, pp.341-351, 2017. DOI : <https://doi.org/10.17135/jdhs.2017.17.4.341>
- [20] Y.Bao, Y.Sun, S.Meng, J.Shi, L.Lu., "2019-nCoV epidemic: address mental health care to empower society". *Affiliations expand*, Vol. 395, No. 10224, pp. 37-38. 2020. DOI: 10.1016/S0140-6736(20)30309-3
- [21] H.W. Sa. "COVID-19: Knowledge, Health Beliefs, Anxiety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 Study". Domestic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ungcheongnam-do. 2021. DOI: <http://www.riss.kr/link?id=T16039013>
- [22] S.J. Kim, E.Y. Kim, H.R. Yang, & Y.J. Chae, "Gyeongnam Inhabitants' Effects of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Focus on Anxiety and Health Belief",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 35, No.1, pp.19 - 32. 2021. DOI: <https://doi.org/10.5932/JKPHN..202135.1.19>